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Ⅰ)

(시편 60: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멸망시키시는 방법으로 미련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떨어진 재앙 중 가장 나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재앙을 재앙으로 알지 못하고 그 재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민족의 재앙을 알았고 그 재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며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지혜와 용단을 스스로 칭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죽게 되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깊은 통회와 자복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악한 환경은 하나님께 버림 받을 때입니다. 지옥이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시편 60편의 역사적 배경은 제목에서처럼 다윗왕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람인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에돔 사람들은 허를 틈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람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를 무렵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에돔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급파하여 에돔을 물리쳤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전쟁 기록이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삼하 8:14)고 합니다. 삼하 5:1-5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 5:10)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칠 때에도 “여호와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삼하 5:24)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삼하 6장).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왕권이 견고케 될 것을 예언하도록 합니다(삼하 7장).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편 60편에서처럼 다윗이 아람을 이기고 에돔을 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일들로 좌절하는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다른 위기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가시를 주십니다.

시편 60편은 국난을 당한 우리 민족에게도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1. 승리의 중간에 실패가 왔다(1-4절)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두에 나타난 말씀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크고 무서운 힘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 (1)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2절).

지진의 위력은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시인은 에돔의 뜻하지 않은 침략으로 민심의 동요가 생긴 것을 지진으로 표현했습니다. 민심을 흔드는 것은 경제위기 보다 더 큰 국가의 위기입니다.

#### (2) 백성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3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비틀거리며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에돔 사람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난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흠으셨고, 분노하셨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요동케 하시고, 백성을 어렵게 하시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같은 심각한 국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이고, 그 원인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한 노를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지는 무리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멸망시키시는 방법으로 미련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떨어진 재앙 중 가장 나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재앙을 재앙으로 알지 못하고 그 재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민족의 재앙을 알았고 그 재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 어떤 이들의 죄로 인해 큰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가 오히려 실패를 한다면 큰 비극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날개를 달게하셨나이다(셀라)”(4절).

하나님의 깃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깃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깃발을 진리를 위하여 높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의 셀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는 영어로 ‘stop and consider’로 번역하며, 중지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의 깃발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번영을 구가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온 세계에 내세울 무렵 IMF 라는 수치와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며 깃발 아래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2007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시작

## 7월14일(토)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2007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14일(토) 사랑부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 씬 배우며 영의 썬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3(월) - 7/24(화)	서울교회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종운 목사 박금실 전도사
유치부	7/23(월) - 7/24(화)	서울교회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종운 목사 이규정 목사
유년부	7/23(월) - 7/25(수)	서울교회	위대한 이야기	이종운 목사 이태훈 목사
초등부	7/23(월) - 7/25(수)	서울교회	위대한 이야기	이종운 목사 장석남 목사
중등부	7/23(월) - 7/25(수)	행복휴양림(강원도 정선)	회복	이종운 목사 윤영국 목사
고등부	7/26(목) - 7/28(토)	행복휴양림(강원도 정선)	가서 제자 삼으라	이종운 목사 정수길 목사 박광일 전도사
사랑부	7/14(토) - 7/15(주)	서울교회 · 서울 숲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켜요	이종운 목사 주원순 선생
대학부	7/18(수) - 7/21(토)	철원 수도 중앙교회 수양관	기도 - 열방을 깨우는 대학부	이종운 이규정 서명철 목사 장정남 전도사
청년부	8/12(주) - 8/15(수)	원주 치악관광 농원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이종운 장석남 목사 박혜원 전도사
디아스포라	8/2(목) - 8/4(토)	서울교회 · 성우리조트	무지개 약속	이종운 윤영국 목사 박광일 전도사
에바다	7/30(월) - 8/1(수)	청평 강 그리고 산	복음에 빛난 자	이종운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7/20(금) - 7/21(토)	다윗 동산	Home of Bible(성경의 가정)	이규정 목사

# 장년부 특강

13일(금) 오후 7시 10시

장년부 특강이 주승중 교수(장신대)를 강사로 모시고 7월13일(금) 오후 7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 날 강사로 서는 주승중 교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하의 강연을 할 예정이며 오후 7시부터 글로리아 중창단의 찬양인도로 찬양을 드리고 7시30분부터 강연을 시작한다. 이번 특강 시간에는 장년부(70세 이상)에서 특송을 준비한다.

한편 이 날 장년부 수련회는 금요일야기도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 2007년 전반기 전도상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7년 상반기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열정적인 복음전도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등록된 새가족은 총 775명이며, 그 중 본인등록이 198명, 일반성도 전도등록이 248명, 70인 전도대 전도등록이 329명이었다. 올해는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백만인 전도운동의 영향으로 일반성도의 전도 참여가 전년 동기 대비 24퍼센트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의 열심에 감사하며, 이를 격려하기 위해 교회는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전도자를 시상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 51명, 가나다 순)  
 경은숙 고금란 김 옥경영 김광룡 김규희 김동진 김미성 김보경 김숙자 김은순 김지숙 김형희 김혜경 김혜중 나기태 남현주 노정숙 박 옥박광일 박길희 박미경 박분옥 박영자 박이선 박정임 박태선 박필순 서순희 양호선 유숙인 유숙지 윤용미 은기장 이경엽 이승래 이옥심 이창희 이현주 이혜경 임명숙 임영숙 임옥균 정애신 최광성 최봉희 최성희 최세정 최준숙 한상준 현승희

# 이스라엘 단기선교팀 바자

7월8일(주) 8층 로비에서 - 3주간 계속

7월 30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되는 단기선교팀(단장: 노문환 장로) 후원을 위한 바자가 오늘(8일)부터 3주간 매 주일 8층 만나 홀 앞 로비에서 열린다.

이스라엘 단기선교팀 바자는 자비량 선교를 떠나게 되는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선교여행 경비 등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신앙서적이나 각종 CD 등의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

우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Rainbow English Academy for Diaspora Leaders 개강

지난 7월 2일(월) 탈북출신 청년들을 위한 영어교실이 개강되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개강한 영어교실은 미래의 북한의 복음화와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선도해 나갈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지도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EAD)로 바꿨다. 우리 교회에서 개강하여 진행하고 있는 READ에서는 오영숙 권사, 김인수 집사, 서명철 목사가 매 주 월, 화, 목, 금요일 강의를 진행하며 현재 많은 탈북출신의 청년들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어교실의 명칭도 이전에 진행해왔던 Diaspora영어교실을 한 단계 발전적으로 Rainbow English Academy for Diaspora Leaders(이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READ를 통하여 많은 북한 복음화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성경통독새벽기도회 금주 순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짜	7/9	7/10	7/11	7/12	7/13	7/14	7/15
성경범위	왕하 17-24	왕하 25-대상 7	대상 8-16	대상 17-27	대상 28-대하 8	대하 9-20	대하 21-30
담당 교역자	정수길	이규정	서명철	이태훈	한상은	장석남	서명철
	서명철	윤영국	정수길	이규정	서명철	이태훈	장석남
	이태훈	한상은	장석남	윤영국	정수길	이규정	이태훈

# 다락방 변동사항

- 1-7 부다락방장 임영숙
- 1-13 부다락방장 이정임
- 1-14 다락방장 이남정 / 부다락방장 한문영
- 1-15 다락방장 황경진 / 부다락방장 김영미
- 1-27 다락방장 김수진 / 부다락방장 지영순
- 1-20 부다락방장 김정숙
- 1-21 부다락방장 옥희숙
- 1-40 다락방장 김고은
- 1-50 다락방장 이경화 / 부다락방장 하영숙
- 1-51 다락방장 박성미 / 부다락방장 최정숙
- 1-52 다락방장 정정숙 / 부다락방장 박종녀
- 1-53 다락방장 조명옥 / 부다락방장 조선임
- 3-23 다락방장 홍정란 / 부다락방장 최금숙
- 3-24 다락방장 최문주 / 부다락방장 정선경
- 4-2 다락방장 조철기 / 부다락방장 유기찬
- 4-6 다락방장 김혜경
- 9-11 다락방장 이부자
- 13-36 다락방장전혜영



만민에게 전도 -이스라엘 단기선교

천국시민 양성 - 사랑부

#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 복음이 전해져야 할 마지막 장소 -



한상은 목사(단기선교팀 지도목사)

제 7기 단기선교팀이 7월 30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땅 끝"(행1:8)이라고 지칭한 곳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단기선교팀이 파송되었던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세운 작은

신생국가이지만, 적대적인 아랍국가들 사이에서도 왕성한 경제발전을 이뤄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고,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기독교는 전체 600여만 명 중 수천 명에 불과하고, 1977년 개정된 종교법을 통해 타종교, 특히 기독교의 선교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선교팀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모습을 갖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접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선교에 종종 사용되었던 구제나 봉사, 공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적절치 않다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조언에 따라, '설문지를 통한 선교지 탐방'과 '현지탐방을 매개로 한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조활동', '유대 기독교회 방문 및 협력활동' 등을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단기선교팀의 계획된 일정을 감당하고,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단기선교팀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히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복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이스라엘은 종교법으로 타국인의 선교를 금지하는 복음 선교의 문이 막힌 나라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인들은 긴 수난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받은 박해가 크기 때문에 기독교를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루 속히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기선교팀의 '모든 활동, 특히 선교지 연구를 위한 준비와 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선교팀은 설문지를 통한 선교지 연구를 전개하면서 이를 매개로한 복음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에 꼭 필요한 선교지 연구가 이뤄지며,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설문지의 준비와 영어준비 등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선교팀에 참가한 모든 대원들이 '더 큰 선교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임목사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차 서울교회의 선교는 서울교회 출신 성도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단기선교활동을 통해서 참가한 모든 분들, 특히 청년들이 선교의 더 큰 비전과 부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 청부 대원들의 '선교경비 마련'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지리상으로 먼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경비가 예전에 비해 2배 정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교경비 마련을 위해 7월 8일부터 시작하는 바자회에도 많이 참석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현지 선교사님들이 더욱 힘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이스라엘에는 우리교회 선교사로 이항명, 손혜신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번 단기선교팀과 관련된 일들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기선교팀 '모든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단기선교팀의 파송기간 중에 전쟁이나 테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교활동에 지장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주시는 만큼 우리 단기선교팀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생명샘 좋은 곳으로

서춘식 집사(사랑부 부장)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4, 15일(토, 주일) 양일간 교회(102호)와 서울숲(독섬 소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켜요'라는 주제로 이종윤 목사님과 주원순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관심 속에 날로 성장케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여름성경학교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풍성한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장애의 시련을 넘어 예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믿음의 행보를 걷는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 우리 교사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수고 가운데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로 나가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안전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혹 우리들 주변에 사랑부에 속하는 이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잠든 영혼이 있다면 저들을 사랑부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슬픔의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샘 좋은 곳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부에는 특별활동으로 핸드벨 콰이어와 기타팀이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체력 훈련의 시간으로 산행을 합니다. 이 모든 교회 활동을 통해 점점 변화가는 사랑부 친구들을 보며 교사들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사랑부 교사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인도 선교보고

# 지금, 그리고 여기에

## 조범연 선교사(인도)

인도의 작은 하늘 아래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범연 선교사가 인사를 드립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서울 교회의 주보와 순례자는 더운 날의 냉수처럼 저와 제 가정에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저와 제 가정이 인도에서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랑과 도고기도팀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인도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주의 종으로 길러 내며, 저들에게 긴 안목과 깊은 통찰력과 산지식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 올 때,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한지라, 푸네의 유니온 비블리칼 세미나리 외에도 인디아 가스펠 미션이라는 선교회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골 전도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열심과 말씀중심주의는 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한 맹인 사역단체에서 설교요청을 받고 맹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힌두교인들이 있으니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3:16을 중심으로 약 30분간 설교했습니다. 그 후에 2명의 힌두교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복인도의 실리구리에 있는 열방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지도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3주간 인텐시브로 집중 강의를 하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어찌 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뱅갈로어에서 통합 측 선교사들이 모여서 매년 5월에 공동사역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인도의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여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목회자 및 신학생 40명에게 성경과 선교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월에 지역목회자를 초청하여 합숙을 하면서 성경, 선교, 목회를 공동으로 강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저도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인도 푸네의 유니온 비블리칼 세미나리에서 조범연 선교사가 드립니다.

## 특별찬양 -한국 교수 성가단 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리는 특별찬양은 한국 교수 성가단(단장 김옥자교수, 부단장 박성련 교수)에서 준비한다. 한국 교수 성가단은 음악대학 성악과 전 현직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된 찬양 선교 단체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찬양을 통해 전하고 있다.

오늘 우리교회를 방문하는 성가단원은 김옥자 교수와 52명으로 지휘-윤종일, 반주-송재희(피아노) 이정신(오르간) 교수가 수고하며 완전한 사랑(우효원 곡)의 8곡을 연주한다.

## 에스더 · 마리아 연합 특강 7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501호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가 7월 월례회 후 연합으로 특강 시간을 갖는다. '조국이 처한 현실과 미래'라는 제하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이갑진 장로(전 해병대 사령관)가 강사로 선다.

여전도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지난 7일(토)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세계 한민족 부흥대회 폐회 설교를 하였다. 11일(수)에는 예장총회 전국장로수련회 주제강연을 한다.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교회(7.8) 바울교회(7.15)  
■ 금주의 식사: 이옥녀 권사, 김호선 집사, 박혜경 집사, 김훈 집사, 김혜아 집사 가정  
-이옥녀 권사 시애를 무사히 도착 감사하며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성경 일천독 대장정

### 성경 완독한 성도들은 반드시 사진촬영에 임하도록

지난 7월 4일(수) 수요일부 예배를 마친 후 교회당 5층에서는 성경 일천독 대장정을 완료한 성도들의 사진을 부착하는 대형 한반도 지도의 제막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운 목사는 시편 119편 43절과 4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통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를 우리교회는 성경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도록 힘쓰고 있으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힘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성경 일천독 대장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구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성경통독을 완료한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통독 카드를 제출하여 줄 것과 703호실에서 지도에 부착할 사진 촬영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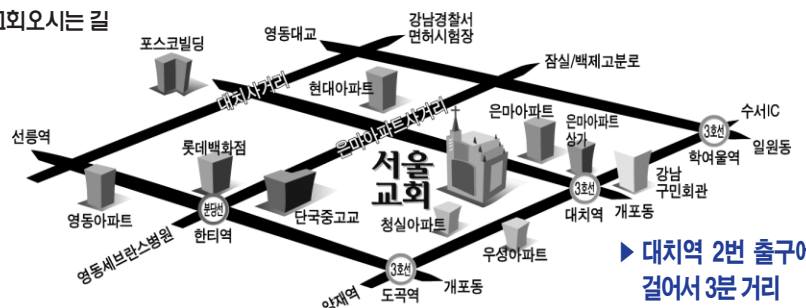
교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85명의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완료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 힘을 내어 성경을 통독하여 한반도 지도 위에 영원히 기념되는 영광도 누리도록 기도한다. (편집부)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 · 육간에 건강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